

■ 오늘부터 노인요양보험 시행

광주·전남 신청자 절반 1만3천명 혜택

방문간호·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시급 요양 시설·보호사 서비스 질 높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치매나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화 사회 공동체가 나서 분담하는 이 제도는 '효(孝)의 품앗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시설 부족 가능성과 심사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인시장 현대화 완료.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2단계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날 30일 준공식에 참가한 유태명 동구청장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선 4기 전반기 결산과 과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문화 동구' 기틀 2문화전당 기공 도심활성화·문화 인프라 구축 박차

민선 4기 광주시 동구의 최대 중점과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도심활성화'와 '문화·예술·관광진흥'이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연관돼 있고 예산 또한 국·시비와 민자에 의존하고 있어 결실을 기대하기는 아직 설부르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도 민선 4기 2주년이 올해는 동구에 역사적인 한 해를 기록할 만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6월10일 대망의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도심활성화와 총장로축제, 보건복지사업 등의 성과를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매터페스트실천본부는 지난달 19일 동구청장의 민선 4기 공약사업 6개 분야 51개 시책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토론회에서 90% 이상인 46개 사업을 완료하거나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속가능성이나 행정역량 강화, 지역성 및 공약이행 체계구축, 공약일치 분야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모범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실련이 주관한 매니페스토 중간평가에서는 5개 구청 가운데 2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받아 구민들에게 역점사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구간 경제조정 문제 등의 실태를 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유가·고물가·공급과잉 등으로 25개에 이르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11곳만이 정상추진되고 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북구 풍향동과 두암 3동을 편입시키려는 구간 경제조정 문제도 자치단체 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동구는 민선 4기 남은 2년 동안 도심활성화와 문화·교육 인프라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동구의 브랜드 효과를 높여준 '총장축제'와 동구문화센터,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 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13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 25개 구역 재개발사업 ▲재래시장 환경 개선 ▲개발제한해체구역의 친환경 개발 ▲광주·전남지역 최초 건강도시 추진 ▲시민단체 행정참여 활성화 추진 ▲치매노인 은빛관리 등도 중요과제로 추진한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민선 3기와 4기를 거치면서 동구 주민들의 뜻이 한곳에 결집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런 의지를 모아 동구를 전국에서 문화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3만석 규모...잠실·문학경기장 수준 을 하반기 타당성 조사 2010년 착공

■ 광주 새야구장 어떻게 추진되나

광주시가 계획 중인 새 야구장은 2만5천~3만석 규모로 1천억원의 사업비(국비 270억원, 시비 730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착공은 2010년 상반기, 완공은 2012년 예정이다.

시는 우선 이달 중 시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올 하반기에 1억7천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2~3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의 중앙부·유자심사를 신청, 이를 통과할 경우 국비 예산을 확보해 201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한 건립 위치와 사업비, 무등경기장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야구장 규격은 중앙 펜스까지의 거리가 120~125m인 서울 잠실이나 인천 문학경기장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부분 국유지인 현 무등경기장 부지(8만5천㎡)를 사유지와 교환하

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를 공영방식으로 개발, 그 이익금을 경기장 건립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4년 660억원(국비 300억원 포함)을 들여 야구전용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부 부·유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보류한 바 있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타당성 입증과 논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야구팬들은 이같은 시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면서 건립 위치와 규모 등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다. 박성재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야구장 건립은 50년을 내다보고 가야 한다. 경험 많은 메이저리그 전문업체에 설계·시공을 맡겨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과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이성엽씨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에는 꼭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건립 위치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이나 '평동' '풍암지구' 등이 가장 낫다며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복지법인 허가 심사 허술

참여자치 21, 재산 출연 미이행 등 지적

광주시의 사회복지법인 허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21은 지난달 30일 "2005년 이후 허가된 광주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계획서·정관 등을 분석한 결과 ▲재산 출연 이행 위반 ▲기존 법인 기본재산을 이용한 새 법인 설립 ▲상위배치 정관 규정 등 각종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21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허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허가된 두 곳의 법인은

기본재산조차 출연하지 않았다. 또 A법인은 이사회 가운데 친인척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현원의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긴 채 규정을 적용해 3분의 1로 규정했고, B법인은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재산을 출연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 21은 "법인 허가가 일선 구청의 검토보고서와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독립 심의기구 설치 ▲법인허가 뒤 3개월까지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사회 인원에 대한 정관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수지만 2개 법인의 경우 전·담을 기본 재산으로 출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돼 법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N복지법인 설립인가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된 오모 전 국장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남에 따라 최근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오 국장은 복직 결정 직후인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

보림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림상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인 남골당

무등산 문법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영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남골당